

그린산업 (Overweight)

해리스 트레이드, 그린산업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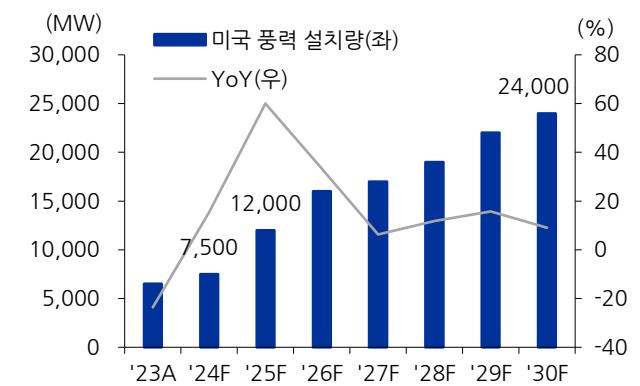
- 미 대선 토론이 해리스의 승리로 평가되며 트럼프에 억눌려온 그린산업 관련주 주가 급등
- 해리스가 당선되면 바이든 정부의 그린산업 육성책인 IRA의 연속성이 보장되기 때문
- 금리 인하의 사이클까지 겹치고 있어 대규모 투자가 동반되는 해상풍력>육상풍력>태양광 순으로 혜택
- 전기차/배터리 산업도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지원 정책 불확실성 하에서 벗어날 수 있어 긍정적
- 다만, 바이든정부가 이미 연비규제 완화를 통해 미국 전기차 시장의 수요전망을 낮추어 놓은 상태
- 해리스가 당선된 후 규제를 재강화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수요 전망을 상회하기는 어려워
-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섹터 최선호. 전기차/배터리 산업도 리스크 낮아졌으나, 고밸류에이션 종목들은 여전히 투자에 조심해야. 차기 정부의 정책 강화 시그널 확인 필요. 밸류에이션과 절대 시총이 합리적인 업체 위주로 투자 권고

그린산업 포인트

해리스의 대선 토론 승리 평가로 그린산업 관련주 급등. IRA 연속성 확보로 그린산업 전체에 긍정적. 특히 금리 인하와 동반되는 재생에너지에 유리. 전기차/배터리도 리스크 낮아졌으나, 저평가 종목 위주 투자 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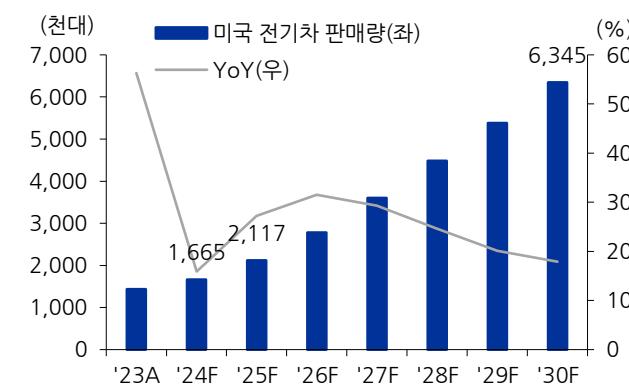
Green Industry 한병화_02)368-6171_bhh1026@eugenefn.com

미국 풍력 설치량 내년부터 고속 성장 예상



자료: 유진투자증권

전기차 판매 예상치, 과거 대비 낮으나 견조한 성장 예상



자료: 유진투자증권

해리스, 뜻 밖의 완승

노련한 전직 대통령에 비해 첫 검증 대상이던 해리스가 완승을 거둘지는 예측하기 어려웠다. 정책에 대한 해박한 지식, 상대의 실수를 유발케 하는 토론 스킬, 유권자들을 향한 소구력에 토론 태도까지 해리스가 완벽히 앞선 것으로 평가된다. 과거 대선 토론이 선거 승리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 따라서 이번 토론으로 해리스의 대선 승리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해리스는 앞에 놓인 가장 어려운 관문을 성공적으로 통과했고, 트럼프는 지나치게 졸전을 펼쳤다. 타이트한 선거의 추가 해리스에게 조금 더 기운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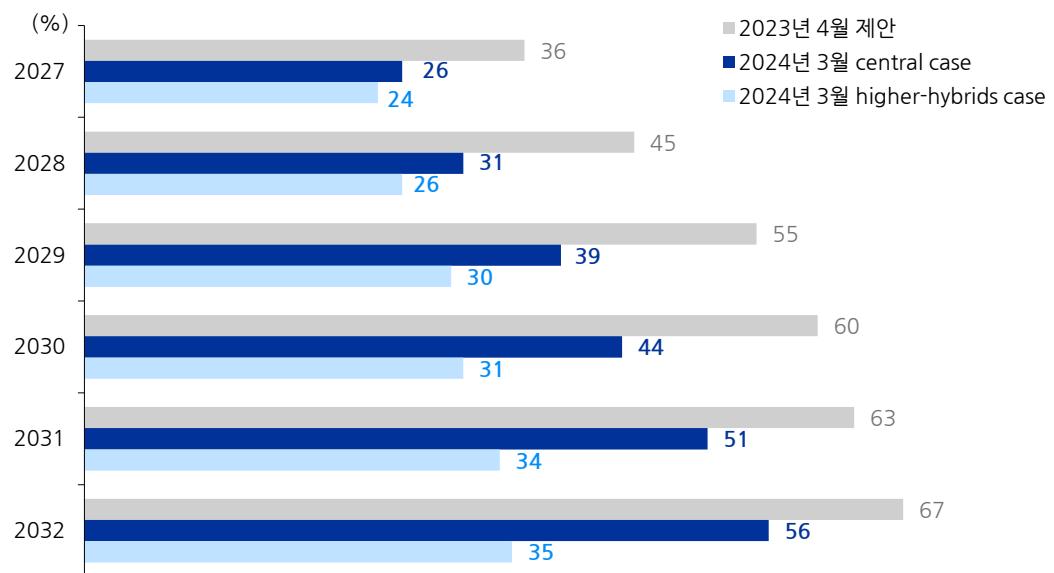
그린산업 전체에 수혜

바이든의 IRA는 지구 역사 상 가장 큰 그린산업 육성책이다. 해리스가 당선된다면 연속성이 확보되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전기차/배터리, 수소 등 모든 영역이 긍정적이다. 트럼프가 당선되어도 IRA의 전면 수정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으나, 투자 심리 측면에서는 위축이 불가피했다. 해리스의 당선은 의회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하는 경우에도 방패막이 될 수 있어서 긍정적이다. 거부권으로 그린산업에 반대하는 공화당의 입법안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선 가능성이 커질수록 해리스 트레이드와 관련된 그린산업의 성장 가능성성이 높아진다.

재생에너지 가장 좋고, 전기차/배터리는 저평가주 위주로 투자해야

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은 금리 인하 사이클에 민감하기 때문에 해리스까지 당선되면 효과가 배가된다. 투자 규모가 큰 해상풍력>육상풍력>태양광 순으로 혜택이 클 것이다. 전기차/배터리 관련 산업도 트럼프의 정책 불확실성에서 벗어날 수 있어 긍정적이다.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연비규제를 무력화하면서 전기차 시장이 침체될 것이다. 다만, 미국의 전기차 산업은 바이든정부에서 미리 연비규제가 완화된 상태이다. 순수전기차 위주에서 하이브리드 중심으로 규제를 낮추었다. 일자리를 중시하는 노조가 바이든과 해리스 정부의 중심지지세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리스가 당선된 후 노조와 합의 하에 연비규제를 다시 상향하면 애초에 예상하던 고성장이 시현될 것이다. 정책 기조의 변화가 감지되기 전까지는 고평가 영역에 있는 국내 일부 배터리업체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투자 리스크가 높다. 절대 시가총액과 밸류에이션이 낮은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을 권고한다.

도표 1. 바이든 정부, 전기차 비중 목표치 하향



자료: DOE, 유진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 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등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 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 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0%
·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5%
· 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4%
· 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1%

(2024.06.30 기준)